

다시금 살피는 글로벌 교육과정



박 경 문
경성대학교 총장

졸업생 취업난이 청년 실업의 본체라는 사실에 대학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취업에 관한 한 이른바 명문대 학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야!”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으며, 제 살길 찾자고 특정학과로 몰리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세태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말리기 어렵다. 그런가하면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일부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이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의 국책지원사업도 궁극적으로는 부적응자 퇴출전략이 아닌가 의심되어,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 분위기가 잔칫집과 초상집을 오간다. 대학의 IMF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싶다.

왜 한국의 대학이 이러한 위기를 맞아야 하는가? 이는 우리만의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수요공급 예측의 실패, 무분별한 대학 설립인가와 정원 확충, 그리고 중앙으로 집중된 교육자원과 경기부진 등은 분명 작금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도 한몫 거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작금의 대학 위기는 우리의 특수한 여건 못지않게 그 저변에 세계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고, 그에 대해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다급하게 시류에 편승하는 거대 정책들을 내놓은 것도 관계있을 것이다. 소위 지식기반사회니 후기 산업사회라는 지각적 변동이 대학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위기를 좀더 근본적 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각 개별 대학은 기본적인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시금 살피고 준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화, 정보화, 탈(脫)현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사회는 단지 경제영역에 대한 의존만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정치, 교육 영역들 간의 상호

“

글로벌 교육과정이 원만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 대학 내부에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도 후기 산업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교육과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삶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의존이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의 가세로 교육을 경제발전의 도구이자 인간 자본을 국가로 유입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은 당연시된다. 단일국가경제는 국제적 상호의존성에 더욱 매달리게 되고, 혁신기술과 우수한 인력자원이 경제 및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부 관리들은 교육기구의 신설이나 정책들을 사회경제적 명제에 부합되는 도구적 관점에서 기획·통제한다. 교육개혁, 교육의 국가목표 명시, 표준화된 시험제도,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실시가 대응을 이루며, 더 나아가 교육과 기업 및 산업의 상호부조 내지 연계에 대한 강조가 본격화된다. 이미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의 과제를 부여받고 기업경영의 각종 전략과 기법들을 교육에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후기 산업사회는 교육의 경제와 정치와의 상호의존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와도 그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양상이 그것이다. 요컨대 단일 세계관의 종말, 경계의 붕괴, 감성 우위와 토대주의의 거부, 차이에 대한 존중, 지역, 국부 그리고

개별적인 것에 대한 존중으로 다원주의가 심화되고 엘리트주의 패러다임이 종식되며 일상인들의 잔잔한 관심사들이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의 근대적 진리의 생산과 분배를 일삼던 대학과 교육의 역할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통적 대학이념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다. 고삐 풀린 자본과 이기심을 견제해야 하는 비판적 지성의 자세가 견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의 이러한 추세와 변화를 인식한다면, 대학은 세계 지향적 교육 목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대학은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시장에 대비하게끔 준비시켜야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 지구적인 지식과 시각 형성이다. 대부분의 전문직은 지리와 환경, 경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구적 차원의 교과목들을 중핵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공대 학생이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와 지역 문화 등의 강좌들을 수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 교육은 기존의 주어진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스스로 창안하고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기능, 그리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작 및 학습 방법론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 분야에 지나친 전문성은 그것이 족쇄로 작용하여 융통성을 잃게 되며 종합적 전문가는 평생 교육을 통해서 쉽게 적응할 여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대학은 종래의 종합적인 교양 교육의 이상을 추구하되 종전과 같이 고정된 학문분류에 따른 학과목 나열이 아니라 사고기능과 탐구학습능력, 나아가 자기-경영기법 등을 별개의 한 축으로 삼는 복합적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광범하고 의미 있는 생활 경험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문화 유형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가로막는 지역주의, 인종주의, 독단론,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경험들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학습은 좋은 수단이 된다. 또 국가, 종교,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적 연구나 체험 활동은 문화유형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대인간의 기술을 고양시키며 의미 있는 문화적 지구적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윤리가 요구된다. 세계화는 곧 규범의 보편화이자 표준화이며, 최

소한의 합의된 도덕은 필수적 요소가 된다. 이를테면 경제영역에 있어서도 상품 자체를 넘어서서 상품 생산과정과 환경, 그 미래적 결과까지 국제적인 윤리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 동정 그리고 온정적 배려의 태도 개발을 요구한다. 또 다른 사람들, 집단 혹은 제도들에 탓을 돌리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및 다양한 도덕 이론들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아야 한다. 차이를 존중하고 관용의 정신을 갖되, 인류 보편적 대의를 위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내용의 혁신을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글로벌 교육과정이 원만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많은 과제들이 우리 대학 내부에 존재한다. 그 가운데서도 후기 산업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교육과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삶의 영역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징없는 일류대 졸업자들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특화된 실용지식과 외국어를 익힌 전문대 출신자들이 국내 대기업에 공채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도 전지구적 체계에 편입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대학교육**